

푸른 하늘, 신선한 바람, 따뜻한 햇볕, 맑은 물, 푸르른 삼림, 출렁이는 바다, 그리고 춘하추동, 이는 우주가 생성한 이래 우주만물이 성장하고 소멸하는 터전이 되어왔다.

이러한 자연환경속에서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여 왔으며, 이 속에서 감사하며 인류 역사는 이루어지고, 기록되며, 보존되어 왔다

한편 사람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태어나는 순간 자연과 환경의 품안에서 성장하며 교육과 사랑의 교재로 평생을 봉사하고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 다시 동식물과 자연의 에너지가 되니 이는 자연의 섭리이며 바로 자연법칙의 순환 사이클린인 것이다.

동물의 생활은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를 취해 탄산가스를 배출하며, 식물은 탄산가스를 취해 탄소동화작용을 하여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로써 동물과 식물은 상호보완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따라서 쾌적한 자연환경, 즉 맑은 물, 따스한 햇볕, 신선한 공기는 사람의 안락한 생활과 건전한 생명보존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는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류문명의 발달과 인구증가의 결과 사람은 생존경쟁을 위해 약육강식, 자연에의 도전으로 치달아 자연의 법칙마저 파괴하고 인간스스로의 자멸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업화로 인한 공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핵무기의 대량화로 인한 대기층의 파괴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인류의 보존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

렀으며, 벌써 남극의 상공은 플로우드 가스로 인하여 오존층이 45% 정도 파괴되어 지구의 기온이 8~12% 상승함은 물론 빙하가 녹아서 해안의 수면이 90cm 상승하여 해일·태풍·침수가 일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또한 인류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연료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SOx, NOx 등의 발생으로 산성비는 삼림을 침식하고, CO₂의 발생은 오존층을 뚫음으로써 지구의 기

生命的 保存環境

金 容 旭

(慶熙大공대교수·化學工學)

온은 -50℃로 낮아질 것이며, 오존층을 파괴하면 지구의 기온은 120℃로 상승하게 되리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너무 추워서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게 되리라는 예측은 상상으로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55년 공업화를 시발로 1972년 100억불 수출, 1984년 400억불 수출, 국민소득 2000불이 되기까지 자연

환경의 보존에는 손쓸 여유가 없었던 탓인지 폐수로 인한 강물의 오염은 물고기의 폐죽음을 가져왔고, 심각한 대기오염 등은 국민 보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오염된 고기와 음식 및 공기와 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불치의 병에 걸려 의사나 약의 무력함을 원망하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편 산성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청정한 공기와 맑은

것이다.

유럽 제국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대기의 오염원인 SO_x, NO_x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인 산성비로 인하여 피해가 심한 것이 삼림이었다. 독일은 60%, 스위스는 40%의 삼림이 죽어가는 것을 늦게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오염방지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임산자원, 관광자원을 얻고 고기양식까지 하여 많은 외화를 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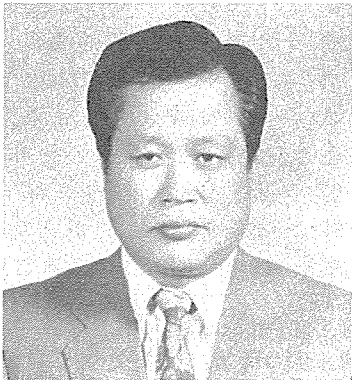
우리도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대책과 자연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공업발전과 무역증대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보류하고 자연보호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명생활의 부산물로 인한 공해요인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인, 과학자, 정치가, 교육자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공해가 민족말살의 주범이라는 인식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금수강산을 쾌적한 삶의 환경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이다.

자연을 보존·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번영을 영원하고 무궁하게 하는 것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옛날에도 치산치수 잘하는 임금님은 정치 잘하는, 추앙받는 국왕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는 오늘날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국가 발전은 물론 복지국가 건설의 요체임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자연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우리의 생활을 살찌게 하고, 자랑스럽게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겠다.



筆 者

물을 제공하는 삼림도 죽어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의 개선과 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1963년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20여년 후인 1985년도에 탁쳐울 환경오염도를 예측하여 그 개선대책에 노력한 결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